

나보다 나라를 먼저 ‘난중일기’를 읽고

최은서

“은서야, 오늘 일기 쓰기 숙제는 했니?”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엄마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자주 들었던 말이다. 나는 엄마께서 일기 숙제를 항상 언급하게 할 정도로 일기 쓰기를 귀찮아 했다. 일기라는 것이 내게는 한없이 부담스러운 존재였기에 미루기가 일쑤였다. 그랬던 나를 부끄럽게 만든 한 권의 책이 있다. 그것은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7년동안의 전쟁중에 쓴 ‘난중일기’였다. 한없이 평화로운 상황에서 일기 쓰는 것도 쉽지않다고 생각해 왔던 내게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전쟁 중의 일기쓰기라는 것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충무공 이순신. 나는 이 분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작년쯤에 가족과 충청도 아산에 있는 ‘현충사’를 다녀왔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현충사는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사당인데, 그곳에서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난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 난중일기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너무나 많았고, 이분의 위대함에 대해서도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된 부분들이 많았다.

나는 충무공 이순신 하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라는 명언이 떠오른다. 그래서인지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게서는 강인함만 느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또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다. 충무공 이순신은 백성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도, 수군들을 통제하고 이끄는 리더쉽도, 어머니를 늘 생각하는 효심도 지니고 있는 분이셨다. 이순신 장군의 성품에 대해서 짐작이 되었다. 충무공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통해 임진왜란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단 한명의 훌륭한 전술가, 전략가만 있어도 수많은 백성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 또한 깨달았다. 난중일기를 읽으며 많은 감정을 느낄수가 있었다. 전쟁 모습이 그려진 곳에서는 손에 땀이 쥐어지기도, 충무공 이순신이 백의종군하게 될 때는 분노가 느껴지기도, 옥에 갇히게 된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는 안타까움을 느끼며 ‘일기’라는 것이 아주 소중한 기록으로 남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였다.

대부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라’ 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나’ 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였던 훌륭한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 믿는다. 나에게도 나보다 나라가 먼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